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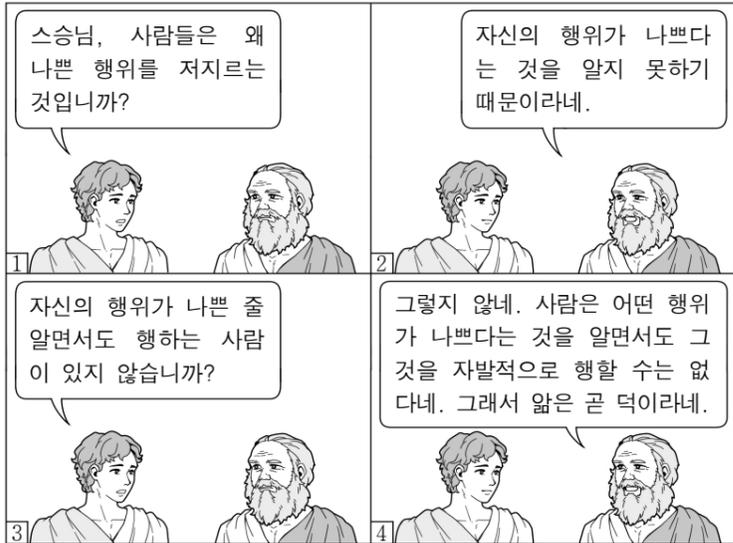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	--	---	--	--	----------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유 의지를 부정하고 자연의 필연적 인과 질서에 순응한다.
- ② 사회적 승인과 부인의 감정에 따라 성품을 계발하고 행위한다.
- ③ 유일신과의 실존적 만남을 통해 신에 대한 참된 앎을 추구한다.
- ④ 고통의 부재를 최고선으로 여기고 필수적인 욕망만을 충족한다.
- ⑤ 지혜의 덕을 갖추기 위해 이성애 따라 자기 영혼을 수련한다.

2.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에 앞서는 본질은 없으며, 미리 주어진 보편적 인간 조건이라는 것도 없다. 태어나는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든 스스로 만들어야 할 미래, 미리 규정되지 않은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 ① 인간이 제작한 사물은 존재에 앞서는 본질이 없다.
- ② 인간은 세상에 실존한 이후에 비로소 정의될 수 있다.
- ③ 인간은 주체성을 발휘하여 자유 자체를 선택해야 한다.
- ④ 인간의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려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 ⑤ 인간이 자신의 모든 자발적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세간(世間)의 세 가지 독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결박하니, 안으로부터 생겨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 마치 대나무나 갈대의 열매와 같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써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어둠을 끊으면 괴로움이 다하여 열반(涅槃)에 이르게 된다.

- ① 팔정도(八正道)는 연기의 원리를 벗어난 중도의 수행이다.
- ② '나'라는 존재의 불변함을 인정하면 번뇌가 소멸한다.
- ③ 모든 괴로움의 생멸에는 원인이 있음을 통찰해야 한다.
- ④ 중생의 모든 행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업(業)이 된다.
- ⑤ 열반에 이르면 윤회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는다.

4.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만물의 이치에서 실마리를 파악하고 한곳으로 취합하면 저절로 하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성(性)은 곧 하늘의 이치이니, 만물은 그것을 부여받아 각각의 이치를 갖추게 된다.</p> <p>을: 만물의 이치는 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마음 밖에서 천하의 이치를 구한다면, 이는 마음의 양지가 부족하여 천하의 사물로부터 그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p>
(나)	

- ① A: 성은 마음의 본체로서 마음의 작용을 통괄함을 간과한다.
- ② A: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이치가 갖추어져 있음을 간과한다.
- ③ B: 도덕적 실천이 도덕적 지식보다 중요한 것임을 간과한다.
- ④ B: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마음속 앎이 확충됨을 간과한다.
- ⑤ B: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일이 격물임을 간과한다.

5.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이성이라는 고유한 본성에 따라 선(善)을 지향하기에,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사회에서 살아가려는 자연적 경향성을 지닌다. 따라서 무지를 피하고 동료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은 자연법에 속한다.

을: 인간의 지복(至福)은 지성을 완전히 하는 데 있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기 때문이다. 지성을 완전히 한다는 것은 신과 그 속성,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오는 활동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 < 보 기 >
- ㄱ. 갑: 인간의 자기 보존은 인간의 본성에 따른 선이다.
 - ㄴ. 을: 지복은 덕 그 자체가 아니라 덕에 대한 보상이다.
 - ㄷ. 을: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 생긴다.
 - ㄹ. 갑과 을: 신은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궁극적 근거이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6.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복잡한 노동 분업은 경쟁을 경제 활동의 조정 방법이 되도록 만든다. 시장에서의 경쟁 대신 계획을 표방하는 사회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일 뿐이다.

을: 자본주의하의 분업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자립성을 상실한다. 이런 분업은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개발한 소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상 사회에서는 소멸한다.

- X: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중시하는 정도
- Y: 필요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중시하는 정도
- Z: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좋음은 공통적이며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좋음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며 최고의 좋음은 완전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을: 좋음 자체는 지위와 힘에 있어서 존재를 초월하여 있다. 인식되는 것들이 인식될 수 있고, 그것들이 존재하고 본질을 갖게 되는 것은 좋음 자체에 의해서이다.

- ① 갑: 좋음 자체는 좋은 것들의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② 갑: 좋음과 나쁨 사이의 중용은 지성적 덕에 의해 발견된다.
 ③ 을: 좋음 자체는 모든 좋은 것들을 모방함으로써 존재한다.
 ④ 을: 좋음 자체는 좋은 것들과 달리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된다.
 ⑤ 갑과 을: 좋음들 간에는 높고 낮음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8.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서양의 물건은 기괴하고 교묘한 기술로 만들어져 날마다 너덕하다. 우리의 부족한 물건으로 이들과 교역한다면 온 나라가 곤궁해질 것이며 예의를 지키던 백성마저 재물에 몰려들어 금수(禽獸)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을: 이 땅의 대운은 결국 우리의 도(道)로 돌아오니, 도의 근원이 매우 깊어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며[守心正氣] 한울님의 성품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진다.

- ① 갑: 정학(正學)을 전하기 위해 서양과의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② 갑: 절의(節義)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③ 을: 기운을 바르게 하여 내세에서 후천 개벽을 이루어야 한다.
 ④ 을: 한울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학(西學)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⑤ 갑과 을: 만민 평등의 사회를 위해 신분제를 폐지해야 한다.

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의무, 너 위대하고 숭고한 이름이여! 너는 호감이나 환심을 살 만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복종을 요구한다. 너는 어떠한 위협도 하지 않으면서 법칙만을 제시한다. 이 법칙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존경을 얻으며, 법칙 앞에서 모든 경향성은 비록 은밀히 반발할지라도 침묵하고 만다. 그렇다면 너의 그 존엄한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격성이다. 즉 자연의 기계적 인과성으로부터의 자유이자, 이성이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에 복종하는 능력이다.

- ① 도덕 법칙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인식하는 근거이다.
 ②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의무로서 부과된다.
 ③ 의무와 경향성 모두에 맞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이다.
 ④ 의무에 맞는 행위가 경향성에서 나온 행위인 경우는 없다.
 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에만 지배받는다.

1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신의(信義)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힘이 나타난 후에 성립한다.

을: 공통의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는 각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지속된다. 각자는 재산권을 더욱 잘 보존하고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한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아니오

예

예

예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보 기 >

ㄱ. A: 권력 분립은 사회 계약의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가?
 ㄴ. B: 주권자는 만인의 권리를 양도받은 인공적 인격인가?
 ㄷ. C: 정부에 대한 신탁 철회로 각자의 재산권은 소멸하는가?
 ㄹ. C: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권을 갖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옛 성왕(聖王)은 사람을 두루 사랑하였고[兼] 차별하여 미워하지[別] 않았다. 두루 사랑하면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폭압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仁)과 의(義)이고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을: 사람이 살면서 실천할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서(恕)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아야 한다. 인한 사람은 자신이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 주고, 자신이 통달하고 싶으면 남을 통달하게 해 준다.

- ① 갑: 인한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증진하고 해악을 제거한다.
- ② 갑: 자국에 이익이 되면 타국에 대한 선제공격은 정당화된다.
- ③ 을: 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 ④ 을: 명분을 바르게 하려면 덕보다 형벌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인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지만 미워할 수 없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민주적 자치가 다른 체제보다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는 데 유리할 수는 있지만, 민주적 지배와 개인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유에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최소한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영역을 구획할 때 옹호되는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 보 기 >
 ㄱ. 소극적 자유의 영역과 간섭받지 않는 영역은 비례한다.
 ㄴ. 진정한 자유는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이다.
 ㄷ. 민주주의가 소극적 자유를 언제나 증진하는 것은 아니다.
 ㄹ. 자유는 다른 어떤 가치를 위해서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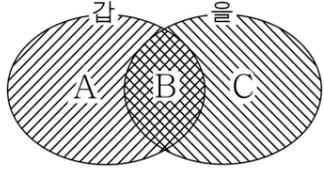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성(性)이란 글자는 오로지 호오(好惡)를 뜻한다. 사슴의 성은 산림을 좋아한다. 비록 사슴이 사람의 집에서 길러져도 한번 산림을 보면 불현듯 선망하는 마음을 가지니 이것을 성이라 한다. 사람의 성은 선을 행하길 좋아한다. 성이 없다면 사람이 비록 선을 행하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행하지 못할 것이다.

- ① 욕구는 하늘이 명한 본성을 실현하는 추동력이 될 수 없다.
- ② 기질이 맑지 않은 사람도 영지(靈知)의 기호를 실현할 수 있다.
- ③ 형구(形軀)를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기호를 가질 수 없다.
- ④ 인간은 금수와 달리 선한 기호와 악한 기호를 모두 부여받는다.
- ⑤ 인간 행위의 공과(功過)는 인간에게 자주지권을 부여한 하늘에 있다.

14.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먹줄과 굵자로 나무를 곧게 펴는 것이 나무의 본성을 해치듯이, 예악을 찾고 인의로 위로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잃게 만든다. 참된 사람은 자연스러움으로 사람을 대하며 인위로 자연의 변화에 참견하지 않는다.</p> <p>을: 먹줄이 곧고 굵음을 가늠하고 굵자가 각도를 가늠하는 근본이듯이, 예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굵은 나무를 바로잡아 곧게 펴듯이, 사람의 본성도 예로써 교화된 후에 다스려지고 선에 부합하게 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 보 기 >
 ㄱ. A: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ㄴ. B: 통치자는 예와 의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ㄷ. B: 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외면적 사회 규범이다.
 ㄹ. C: 사람의 본성은 사회 혼란이 생겨나는 원인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중국 불교 사상이 갑, 한국 불교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신의 성품에는 그릇됨도, 어지러움도, 어리석음도 없으므로 이를 것이 없다. 지혜로 관조하여 법의 모양[法相]을 떠났는데, 무엇을 이루겠는가? 자신의 성품을 단박에 닦고 본심(本心)을 알게 되면 그것이 해탈이다.
 을: 자신의 성품이 곧 부처임을 깨친 뒤에도 늘 비추고 살펴야 궁극의 경지에 이른다. 망념(妄念)이 본래 공하고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먼저 깨쳤으므로 뒤에 닦는다 하나 오직 무념(無念)을 근본으로 한다.

- ① 갑: 중생은 염불만으로 이상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
- ② 갑: 진리는 마음으로 전할 수 없기에 반야가 필요하다.
- ③ 을: 참다운 닦음은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야 가능하다.
- ④ 을: 글로 표현된 부처의 가르침은 해탈의 방편이 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부처의 성품은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형성된다.

1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에게

자네가 대장부에 관해 물었기에 답장을 하네. 대장부는 언제나 인(仁)에 머물고 의(義)를 따라 걷는다네. 그는 관직에 등용되었을 때는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가고, 관직에 등용되지 못했을 때는 홀로 그 길을 간다네. 부귀해져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빈곤해져도 의지가 변하지 않으며, 위세와 무력 앞에서 지조를 굽히지 않는다네.

- ① 군주는 인과 의를 저버려도 교체되어서는 안 된다.
- ②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인과 의를 행할 수 있다.
- ③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하면 도덕적 기개를 기를 수 있다.
- ④ 대장부는 소인과 달리 하늘로부터 선한 마음을 부여받는다.
- ⑤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종음에 대한 판단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면, 타인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자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들, 즉 평판이나 권력 등을 과감히 무시하는 것이다.

- ① 자연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마음이 평온해진다.
- ② 이성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극복해야 한다.
- ③ 모든 정념에 초연해야 신의 예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자신의 욕구와 충동은 자신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없다.
- ⑤ 외부 사건에 대한 판단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수 없다.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도덕적 성질에 대한 구분은 관념들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감각에서, 다시 말해 사람의 행위와 성품을 관찰할 때 생기는 쾌감이나 혐오감에서 나온다.
 을: 정직, 절제, 정의는 고정된 목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선들이 아니며 경험의 질적 변화의 방향이다. 성장 그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 보 기 >

ㄱ. 갑: 사회적 승인에 따른 선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ㄴ. 갑: 선악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구분된다.
 ㄷ. 을: 도덕은 절대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ㄹ. 갑과 을: 유용성은 도덕적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천리를 보존하는 일은 도심과 관련되고 인욕을 막는 일은 인심과 관련됩니다. 도심은 사단과 같은 것이고 인심은 칠정과 같은 것이며, 사단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탄 것입니다.

천리란 무위(無爲)하여 기의 틀을 타고서야 움직입니다. 기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가 움직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性)이 기를 타고 움직여 정(情)이 되니 기를 떠나서 정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보 기 >

ㄱ. 갑: 이가 발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기의 작용성에 있다.
 ㄴ. 을: 사단은 인욕의 섞임 없이 천리에서 나온 정이다.
 ㄷ. 을: 성(誠)으로써 기질과 본연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ㄹ. 갑과 을: 기는 발할 수 있으나 이를 주재할 수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내가 강조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것은 방탕한 사람이 추구하는 쾌락이 아니다.
 을: 행복은 쾌락이자 고통의 부재이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뚜렷하게 선호하는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

- ① 갑: 모든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② 갑: 이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참된 쾌락에 이를 수 있다.
- ③ 을: 자기희생의 행위는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선하다.
- ④ 을: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음은 도덕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
- ⑤ 갑과 을: 사회적 행복을 최대화하는 행위만이 유덕한 행위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